

1. 서론
2. 충남 유교문화의 역사적 개관
3.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관리실태
4.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활용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 1. 서론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문화자원이 경쟁력을 갖춘 지역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찬란한 백제문화와 곳곳한 선비문화의 본 고장인 충청남도에도 많은 전통문화자원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교문화자원은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온 충남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고려말 조선초기에 성리학 수용의 창구역할을 하였고, 내륙지역은 17세기 기호학파의 중심지였으며, 조선시대에 기라성 같은 유학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따라서 충남은 다양한 유교관련 유형문화자원과 정신문화자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관리 및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조 500여년 동안 축적되어 온 충남의 전통적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관리실태를 검토하며, 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충남 유교문화의 역사적 개관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교가 시대를 주도한 것은 고려말 성리학의 도입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성리학의 도입은 고려말 충렬왕 이후 안향(安珦), 백이정(白頤正), 우탁(禹倬), 권

---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학연구부장

보(權溥)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앞장선 사람은 안향(安珦)이지만, 원나라에 10년간 머물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돌아오면서 성리학 관계 서적을 다량 수입하여, 성리학을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충남 남포 출신의 백이정(白頤正)이다. 백이정의 묘소는 보령군 웅천면 평리 양각산(羊角山)에 있으며, 그곳에 그를 모신 신안사(新安祠)와 그의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성리학은 이제현(李齊賢), 이승인(李崇仁),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등의 여말선초 유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적·사상적 수용의 단계에 돌입하였다. 이제현(1278~1367)은 권보의 사위로 당시에 풍미했던 사장의 학문에 반대하고 주자의 실천적 학문을 주장하였다. 백이정의 뒤를 이어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이곡(李穀, 1298~1351)·이색(李穡, 1328~1396) 부자를 비롯한 한산이씨(韓山李氏)가문으로 이들은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 출신이다. 선조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이개(李塏, 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기묘명현록에 올라있는 이자(李紆, 1466~1524)도 이색의 후손이다. 사육신 가운데 성삼문(1418~1456)과 박팽년(1417~1456)도 충남과 연고가 있으며, 생육신인 김시습(1435~1493)은 부여 홍산 무량사에 부도와 영정이 남아 있다.

한국의 유교는 16세기에 이르면 ‘조선적 성리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특히 16세기 기호유학은 화담계열(花潭系列)이 중심이었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은 무인집안 출신으로, 제자를 받아들일 때 문호를 개방하여 양반뿐 아니라 양인·천인에게까지 문하에 출입하게 했다. 이중 충남의 내포지방에 살던 인물로 이지함(李之函)·서기(徐起)·홍가신(洪可臣) 등이 있다.

이지함(1517~1578)은 한산이씨로 보령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서기(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으로 화담문하에 출입했다. 그는 만년에 공주의 공암에 살다가 그곳에서 묻혔으나, 원래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다.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목사를 지낸바 있는 홍가신(1541~1615)은 화담의 제자인 민순(閔純, 1519~1591)의 제자이다.

조선후기 유학의 흐름은 크게 기호학과와 영남학과로 분류할 수 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학문은 그 제자들에게 계승되면서 퇴계학과, 율곡학과가 형성되었고, 나아가 조선후기에는 영남학과와 기호학과의 중심이 되었다. 기호학과의 종장은 율곡 이이로 정치적으로는 주로 서인계(후의 노론·소론)와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 유학의 주류는 영남학과가 아니라 기호학과였다. 조선시대의 학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조선 후기 300년간의 중앙정계는 대체로 기호세력이 주도하였다. 기호학과의 기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지방과 오늘날의 충청지역에 해당하는 호서지방을 가리킨다. 그런데 기호학과의 중심인물들은 호서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기호학과 가운데 율곡 이이의 적통을 계승하는 김장생·김집·송시열·권상하 등이 모두 충청도 출신이며, 원래 송시열의 수제자였다가 후에 노·소분당이 이루어지면서 갈라선 명재·윤증도 충청도 출신이다.

율곡학과 내에서 인성과 물성이 같으나 다르냐를 놓고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湖洛論爭])이 일어났는데, 이는 율곡의 주기론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洛論])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湖論])으로 갈리었다. 호론의 중심인물인 남당 한원진은 내포의 결성현 남당리[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 출신이며, 그의 지지자들은 예산의 병계 윤봉구, 매봉 최징후, 서산의 한간 김한록, 봉암 채지홍 등이 있다. 낙론의 지지자들은 주로 경기에 살았지만, 중심인물인 외암 이간은 온양의 외암리[현재의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출신이다. 한원진의 적통이면서 기철학자로 유명한 녹문 임성주 또한 충청도 청풍 출신으로 공주와 연고가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3대 논변 중의 하나인 인물성동이논쟁은 충남의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인물성동이론에 끼지 않은 유명한 학자·정치인으로는 토정 이지함의 조카로 대북의 영수이면서 영의정까지 지낸 아계 이산해(1539~1609,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위치), 인조초 김장생·장현광과 함께 조정에 정소된 3대산림으로 예학에 뛰어났던 박지계(1573~1635, 신창사람으로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 효종때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의 역울함을 논하다가 죽임을 당한 김홍욱(1602~1654, 정조대의 벽파 김구주의 조상으로 서산 사람, 성암서원 배향, 묘소는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김굉필·정여창·이언적 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었고, 김육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요 교육이론가였던 포저 조익(1579~1655), 권필·윤근수·이호민 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던 동악 이안눌(1571~1637), 박지계와 조익의 문인이면서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던 야곡 조극선(1595~1658),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에 우거(寓居)했던 남구만(1629~1711), 홍주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獨相)을 지낸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 변암 채제공(1720~1799) 등이 있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난숙기는 17세기인데, 이 시기의 주도적인 위상에 있던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호서출신이 절대 다수였으니, 이는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산림(山林)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림은 조선시대 산곡임하(山谷林下)에 은거해 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국가로부터 징소를 받은 인물로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으로 임하지인(林下之人), 임하독서지인(林下讀書之人) 등으로도 불리었다. 산림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유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해 있다 해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 특유의 존재로서, 이들의 명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므로, 과거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더 존중되는 선비였다.

17세기 산림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현재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충청도 출신

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김장생(연산), 박지계(신창·아산), 강학년(연가·회덕), 김집(연산), 조극선(덕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권시(유성), 윤순거(노성), 이유태(금산·공주), 윤선거(노성), 윤원거(노성), 송기후(회덕), 이상(전의), 윤증(노성), 권상하(청풍), 이기홍(연풍) 등이다.

이외에도 신흘(1566~1628, 회덕), 윤휴(1617~1680, 공주우거), 김만중(1637~1692, 회덕), 이중환(1690~1752, 공주), 박문수(1691~1756, 천안), 임성주(1711~1788, 공주), 김정희(1786~1856, 예산), 김항(1826~1898, 연산), 최익현(1833~1906, 청양) 등이 충남(대전) 지역과 연고를 갖고 있다.

### 3.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관리실태

#### 1) 유교문화유적 조사실태

조선시대에 유학자를 다수 배출한 호서지역에는 유·무형의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충남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은 고고유적이거나 백제유적에 비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고학 중심의 문화유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형의 유교문화재도 함께 조사되는 정도였다.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보고서로는 『충남지역의 문화유적』과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이 있다.

먼저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충남지역은 백제문화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1982년부터 1996년까지 15년간에 걸쳐 체계적인 문화유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충남대 백제연구소에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충남의 천원군·서천군(1982년), 보령군(1983년), 예산군(1984년), 연기군(1985년) 등 5개군에 걸쳐 광역의 유적조사를 실시하여 1986년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제1집)』을 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공주대 박물관에서 부여·논산·아산·당진·천안·청양·예산·서천·보령·연기 등을 조사하여(1987년~1996년)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2집부터 제12집까지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유교유적이 한 분야로 취급되어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공주 : 향교 및 서원 3건, 사우 6건, 정려 30건, 비 및 기타 5건

부여 : 향교 4건, 서원 6건, 사묘·영당 14건, 정려 37건 (비는 별도 조사 16건)

논산 : 향교 3건, 서원 8건, 사우 4건, 정려 26건, 비 6건, 기타 9건

아산 : 향교 3건, 서원 3건, 사우 3건, 정려 23건, 신도비 7건, 비 8건

당진 : 향교 2건, 사우 6건, 서원 1건, 정려 22건, 효열비 3건, 신도비 7건

천안 : 향교 3건, 사우 5건, 정려 30건, 금석문 12건(신도비, 비석군)

청양 : 향교 2건, 사우 5건, 정려 22건, 금석문 12건

예산 : 향교 3건, 사우 5건, 정려 34건, 신도비 9건, 비 11건

서천 : 향교 3건, 서원·사우·영당 9건, 정려 28건, 금석문(비) 10건

보령 : 43건(향교 3건, 서원·사우·사당 9건, 정려 22건, 신도비 8건, 효행비 1건)

연기 : 향교 2(2)건, 서원 및 사우·영당 14건, 정려 32건, 금석문 33건(신도비 13, 비석  
군 20)

이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누정과 고택, 서당, 명현묘소 등은 유교유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전통건축이나 기타유적에 포함), 금석문(묘비, 신도비, 비석군 등)은 별도의 장이 설정되기도 하고, 유교유적에 포함되거나 기타유적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조사과정에 유교유적(문화) 연구의 전문가가 거의 참여하지 않아, 조사결과에 부분적으로 오류와 한계가 있다. 고고학 위주의 지표조사에, 유교유적에 대한 조사도 함께 개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98년부터는 문화재청의 사업으로 전국 시·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충남의 경우 동산문화재 이외의 각종 문화유적의 수량이 천안시(1998년) 210건, 공주시(1998년) 468건, 보령시(1999년) 445건, 서산시(1998년) 497건, 논산시(1999년) 517건, 부여군(1998년) 455건, 서천군(2000년) 432건, 홍성군(2002년) 668건, 예산군(2001년) 447건, 태안군(2000년) 494건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은 현재(2003년도)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기군과 당진군은 아직 지표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비록 시·군의 유적 건수가 지표조사 담당기관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유교유적의 경우 천안시 74건, 공주시 72건, 보령시 57건, 서산시 83건, 논산시 145건, 부여군 98건, 서천군 96건, 홍성군 68건, 예산군 89건, 태안군 75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1990년부터 전문연구자에게 의뢰하여 분야별로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문화유적총람』으로 사찰편(1990), 성곽 관아편(1991), 금석문편 상·중·하(1993) 등을 발간하였으며, 이어 『금강지』 상·하(1993), 『계룡산지』(1994), 『도서지』 상·중·하(1997), 『충남의 향교』(1999), 『충남의 서원·사우』(1999) 등을 발간하였다. 이 중에서 금석문과 향교, 서원·사우 등은 유교문화유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사 및 집필이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유교문화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종가, 서당, 정려, 누정, 전적 및 고문서 등의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지 못한 점이다.

## 2) 유교문화재 지정실태

문화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지정문화재 비중은 경북(1,503), 경남(1,061), 전남(907), 서울(874)에 이어 전국 5위의 수량으로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고 있다. 2002년(1월) 현재 충남도 소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02점(국보 28, 보물 87, 사적 42, 사적 및 명승 1, 천연기념물 15, 중요 무형문화재 7, 중요민속자료 22), 도 지정문화재 325점(유형문화재 135, 기념물 143, 무형문화재 33, 민속자료 14), 그리고 도 지정의 문

화재자료 290점(유형문화재 243, 기념물 46, 민속자료 1) 등 도합 817점에 이르고 있다(충청남도 『문화재목록』 2002. 1. 참조).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충남지정 문화재의 24.7%(202건), 도 지정문화재가 39.8%(325건), 도 지정 문화재자료 35.5%(290건)로서,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충남의 경우 도합 615건으로 전체 지정문화재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시·도별 지정문화재 통계에 나타난 충남의 지정문화재 특징 가운데 주목할 것은 ‘문화재자료’ 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문화재자료가 지정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 1.5%(13/874), 경북 27.5%(413/1503), 경남 26.7%(283/1061), 전남 21.7%(197/907), 전북 22.6%(144/637), 경기 14.2%(98/692), 강원 24.5%(107/436), 충북 7.5%(35/465) 등인데 반해, 충남의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중 문화재자료의 비율이 전국 최고인 35.9% (291/811)에 달하고 있다.

2002년 1월 현재 충남의 유교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43점, 도 지정문화재 147점, 문화재자료(도지정) 156점으로 모두 346점이다. 충남의 817점의 문화재 가운데 유교문화재는 346점에 달하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는 202점 가운데 43점에 불과하고 대부분 도지정 문화재이다(지정문화재 147점, 문화재자료 156점). 특히 문화재자료 290점 가운데 유교분야의 문화재가 156점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충남의 유교문화재 지정현황

	가					
	3	1	6	·	11	21
	2	13	8	2	17	42
	·	4	3	·	10	17
	11	2	5	3	9	30
	2	4	3	·	8	17
	5	14	6	2	21	48
	·	1	·	·	4	5
	2	1	3	·	13	19
	·	1	2	·	7	10
	4	9	8	1	21	43
	1	1	5	·	4	11
	1	2	2	·	4	9
	4	1	6	2	10	23
	7	7	9	·	12	35
	·	2	2	1	1	6
	1	1	4	·	4	10
	43	64	72	11	156	346

이들 유교문화재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논산시(48), 부여군(43), 공주시(42), 예산군(35), 아산시(30), 홍성군(23), 천안시(21), 금산군(19), 보령시(17), 서산시(17), 서천군(11), 연기군(10), 당진군(10), 청양군(9), 태안군(6), 계룡시(5)의 순서이다. 지정된 유교문화재의 지역별 분포는 논산, 부여, 공주, 아산, 예산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지정문화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부여, 공주지역 문화재의 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유교문화재의 경우에는 논산지역이 가장 많고, 아산·예산 지역도 주목된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산에 많은데, 이는 이충무공 관련 유적·유물과 외암리를 중심으로 한 고택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교유적은 주로 논산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많이 남아 있다.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의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 시·도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시·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한다.

문화재청의 중앙 문화재위원회 구성은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6개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분과는 건조물 문화재·민속가옥, 제2분과는 동산문화재, 제3분과는 사적, 제4분과는 무형문화재, 제5분과는 명승 천연기념물, 제6분과는 매장문화재를 담당하며, 특별 분과로 박물관분과가 있다. 각 분과별 인원구성은 10인 전후의 위원과 20인 전후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 문화재위원회도 문화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하고 관련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 분야별 구성이 필수적이다. 지정문화재가 1,500여건이 넘는 경상북도의 경우 문화재 위원 40인, 전문위원 5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4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재 위원은 모두 20인, 전문위원은 27인이다. 전공영역별 구성을 보면 유교문화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사 및 서지학분야가 경북은 17인(위원 7인, 전문위원 10인), 전남은 8인(위원 4인, 전문위원 4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충남의 경우에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면(2001.3.10 개정), 도 문화재 위원회는 2~3개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8조). 종전에는 10인 내외의 위원과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이루어져 분과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형식에 그쳤으나, 다행히 2003년 7월에 문화재 위원 18인, 전문위원 25인을 위촉하여 2개분과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교문화재를 담당할 전문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실 도문화재위원회가 국가지정문화재보다는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다루고 있으므로, 충남의 경우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서 유교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고, 전공영역별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기존 유교문화자원의 문화재 지정은 건물중심으로 지정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존 건물의 문화재 지정시 그 건물과 관련된 문헌자료는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건축사적인 의미만 논의되어 왔다. 유교문화자원은 유형의 문화재라도 그곳에 담겨있는 무형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향교서원의 경우, 건축연대와 중수연대, 건축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거쳐간 인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문화재 지정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소홀하였다. 이는 유교문화재의 지정 시, 유교문화나 조선시대 역사 전공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데에서도 기인한다. 한말이나 일제강점기의 근대 문화재 지정에는 건축이나 문서 자체보다도 오히려 관련인물의 정신문화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 3) 유교문화재 관리실태

유교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의 가치, 역사성, 지정내용, 입지조건, 소유주의 조건, 거주유무 등에 따라 관리 조건과 체계가 다르다. 현재 지방에 소재한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현재 지정된 목조문화재(건축물) 중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인원을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43호인 김정희선생고택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충남지역의 유형문화재는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소유주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교문화재의 소유권은 크게 소유주가 국가나 지방정부인 경우, 소유주가 (종교)단체인 경우,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로 나뉘어 진다.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정부인 경우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수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를 위한 부속건물을 만들어 원형 훼손을 막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정희 선생고택이 이에 해당한다. 소유주가 향교·서원과 같이 유림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유림(또는 유도회)에서 관리를 하며 보수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보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고택과 정려, 재실, 사당과 같이 문중에서 소유한 문화재는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이다. 관리는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개인이 담당하고 있다. 고택은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어서 원형을 보존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당인 경우 조상숭배의 관습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고택의 경우 현대적인 문화생활이 원형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당의 경우에도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전통적인 모습을 훼손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개인소유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보수 및 수리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유교유적에 사용된 문화재 사업비를 보자.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충청남도에서 유교유적에 사용된 문화재 사업비는 모두 33,642,449,000원으로 이는 충남의 문화재사업비 총액(223,898,256,000원)의 15%에 불과하다. 지정문화재만 비교해 보면, 유교문화재의 비중이 42%에 달하는 점에 비하면, 사업비가 적은 편이다.

이들 유교문화재 사업비의 연도별 추이는 1990년까지는 대체로 10억원 이하였으나, 1997년 39억원, 1998년 44억원, 1999년 37억원, 2000년 35억원이었다. 그런데 2001년은 다시 24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교문화재만의 상황이 아니고, 문화재 전체 보수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유교문화재 사업비를 유적별로 비교해 보면, 향교 28.67%, 서원·사우 32.53% 등으로, 60% 이상이 향교와 서원의 보수에 투자되고 있다.

### 4) 고문서·전적의 조사·수집 실태

유교문화재 가운데에는 건조물과 같은 부동산문화재만이 아니라, 서적·문서·회화 등 동산문화재도 유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자원이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도 문화재 자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재가 보수사업의 대상이다. 그러나 유형의 문화재에는 부동산문화재와 동산문화재가 있다. 그런데 동산문화재는 제대로 된 조사와 현황 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당장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자료만이 아니라, 동산 문화재 특히 인멸되기 쉬운 고문서·전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수집이 필요하다.

그 동안 지방 역사자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수집사업은 대부분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조사·수집 사업을 들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으로 약칭)에서는 1980년대부터 고문서와 고서의 조사·수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993년부터는 교육부지원 국학진흥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7월까지 조사 수집된 내용을 보면, 고문서 64만 8,253점, 고서 51만 3,305책에 달한다.

그 동안 정문연이 대전·충남지역에서 수집해간 자료는 1984년에 고문서 4,746점, 1997년에 고문서 1,864점과 고서 1,034책, 1998년에 고문서 8,479점과 고서 322책, 1999년에 고문서 2,278점과 고서 204책, 2000년에 고문서 305점, 합계 고문서 17,672점과 고서 1,560책이다. 이를 소장처별로 살펴보면, 서산의 경주김씨(고문서 422점), 논산의 파평윤씨(고문서 4,261점), 논산의 노강서원(고문서 63점), 청양의 연일정씨(고서 64책), 공주의 대구서씨(고서 29책), 대전의 김영한 소장자료(고문서 8,284점, 고서 941책), 부여의 함양박씨(고문서 1,886점), 예산의 한산이씨(고문서 2,451점, 고서 526책), 청양의 단양우씨(고문서 305점) 등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으로 약칭)에서도 1987년부터 지방사료의 조사수집작업을 실시하였다. 국편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방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 국편에서 행한 국내 사료 수집·정리현황은 고서 3,042책 162,912면, 성책류 고문서 1,257건 35,144면, 낱장 고문서 12,058건 23,885면에 이른다. 그 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조사·수집해 간 현황을 보면, 1989년에 고문서 186점과 고서 123책, 1996년에 고문서 49점과 고서 51책, 1997년에 고문서 265점과 고서 187책, 1999년에 고문서 77점, 2001년에 고문서 236점 등 모두 고문서 813점과 고서 361책을 조사·수집해 갔다. 이와 같은 실적은 국편의 전체 수집량이나 다른 시·도의 수집량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정문연과 국편의 지방사료수집은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의 자료는 자료소장자와의 협의하에 기증이나 기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지역의 자료가 정문연이나 국편에 기증될 경우, 혹시 있을지도 모를 원자료의 도난이나 분실은 방지할 수 있겠지만, 지역자료(문화재)가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지방문화의 입장에서 매우 애석한 일이다.

중앙에서 지방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조사·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지방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조사·수집 사업은 거의 없이, 일부 향

토사가들의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지방사료가 조사·수집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에는 충남도정사료실에 충남도정과 관련된 고문서 및 서책이 수집되어 있다. 2002년 현재 고문서 671점, 고책자 569권, 사진 274점, 문집 183권, 실물 209점, 탁본 29점, 지도 25점, 도안 29점, 행정장비 102점, 서류철 110점, 관광그림엽서 24점, 개도 100년 자료 19점, 합계 2,344점이 수집·관리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개인(김영한·서봉식)의 헌신적인 열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외에도 몇몇 기초자치단체나 문화원, 사설 박물관 등에서 향토사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진열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4.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활용방안

##### 1) 유교문화자원 활용의 배경

그 동안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훼손됨이 없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전통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이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교문화재의 경우 단순한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다. 적절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보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교문화공간의 활용은 관련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고려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교문화재의 경우, 부동산문화재만이 아니라, 서적·문서·회화 등 동산문화재도 유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자원이다. 무형문화재는 의식, 가치지향, 사상체계 등과 직접 관련되므로 유교문화를 조사·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형의 유교문화재를 정비하거나 복원·재현할 경우, 유교의 무형문화재는 기본방향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유형의 유교문화공간은 단순히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보다는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유교문화공간에서 과거에는 많은 유교의식, 교육, 교화 등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향교와 서원 등에서 있었던 유교의례와 교육은 이제 그 명맥조차 잇기 어려운 실정이다. 석전제와 봉심에서조차도 의례가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시대의 정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동구밖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대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정려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원래 정려는 일반인에게 훌륭한 행실을 기리고 장려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와 같은 본래의 기능을 고려한 적극

적인 관리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유적 정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등 역사문화유적의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전시·공연 확대, 고궁의 궁중의례 및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문화재 야간조명 등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운영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여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외국인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경쟁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중복 투자되거나 재원대책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충남은 공주·부여의 백제고도를 중심으로 한 찬란한 백제문화와 함께,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본고장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남지역은 고려말 성리학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시대 예학의 중심지였다. 한국사람들은 예로부터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 특히 17세기 이후 세계문화상에서 유래가 없는 예학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예학발달에 큰 역할을 한 주역들이 충청인들이다. 한국의 예문화를 중흥 발전시킨 이는 예학의 종장으로 평가되는 김장생이다. 김장생은 상례를 정리하여 한국 민간 예서의 효시가 된 『상례비요』와 가정의례의 이론서 『가례집람』을 지었다. 그후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17-18세기 한국의 학문계와 정치계를 주도했던 대학자, 대정치가들이 대거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예학자로 이름 난 이는 김집,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유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공주, 대전, 논산 등에서 살았던 충청인들이다. 그들은 각종 의례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에 지나지 않던 예학을 학술적 연구로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무의식적인 가례 준행을 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문화했다. 또한 이 지역은 산림세력이 강했던 곳이다. 조선 후기 산림은 한 지역 사대부의 여론을 주도하고, 지역 사림의 천거권까지 보유하여 국정의 방향과 운영, 특정 봉당이나 정파의 성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 충남지역에는 대학이 많이 설립되었다. 충남의 유교문화자원을 중부권의 주요한 대학문화와 연계 가능한 지역이 많다. 유교문화 체험 관광 만이 아니라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유교문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항일 문화의 중심지인 독립기념관의 소재지라는 특성과 연결하여 ‘충’ 문화의 중심지로서 특성을 찾아 갈 필요도 있다. 나아가 인접한 대전광역시 및 천안시 등 중부의 인구밀집지역이 함께 병행하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가족중심, 자모중심, 초등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 2) 유형별 현황과 활용방안

대체로 유교문화자원들은 정적이며, 교육적이고 지루해서 재 방문율이 적은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 특정 인물, 혹은 전통의례나 한학 중심의 문화개념이 강조된 데 따른 부정적 인식일 뿐, 실제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한다면 발전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활용을 전제로 할 때, 유교문화자원(공간)은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구분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관련 문화자원, 제례관련 문화자원, 윤리관련 문화자원, 교유관련 문화자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교육관련 문화자원

전통시대의 유교문화 교육기관으로는 향교와 서원·서당 등이 있다. 향교는 조선시대 일읍 일교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을에 세워진 관학기관으로, 충남에는 36개소의 향교가 현존한다. 이들의 시·군별 분포는 부여군에 4개, 보령시·아산시·서천군·논산시·천안시·예산군에 3개, 금산군·서산시·연기군·청양군·홍성군·당진군에 2개, 공주시와 태안군에 1개의 향교가 현존하고 있다. 충남의 36개 향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없고, 모두 도지정문화재이다. 공주향교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오천향교를 제외한 34개 향교는 도지정 기념물, 오천향교 대성전은 도지정 문화재자료이다. 서원·사우 가운데 연산 돈암서원은 국가지정 사적에 해당하고, 논산의 노강서원·부여의 홍학당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충현서원 유적, 고간원지, 충곡서원지, 노성궐리사, 창열사 등은 도지정 기념물이며, 그 외 34건이 문화재자료(도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논산의 돈암서원과 노강서원, 부여의 창열사 등은 대원군의 서원정리 때 훼손되지 않았던 47개의 서원에 속한다.

이들 향교 서원은 오늘날에도 그 기능을 살려 사회교육기관화가 가능하다. 우리문화에 대한 주체적 이해의 공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단힌 문화형식에서 열린 문화를 지향하는 교육 공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학교교육·제도교육과의 차별성, 문화자본 개념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일반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화 등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으로는 예절교육, 동양고전교육, 다양한 형태의 서당교육, 유교문화 특별강좌 등을 행하고, 나아가 향교·서원 공간에서 관례행사, 전통 혼례 및 수연 행사, 백일장 행사, 향교석전제와 봉심의 일반인 참여 유도, 강학례 행사의 이벤트화, 향례 행사의 이벤트화, 선비문화제 등의 실시가 가능하다.

향교·서원이 성현의 위패를 모신 신성한 공간이지만, 지나치게 엄숙함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보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활용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오늘날처럼 전통문화의 산실인 향교·서원을 21세기의 주역인 젊은 세대가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향교·서원이 존재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 신세대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눈높이 교육, 눈높이 이벤트가 필요하다.

향교는 과거 읍치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했었기에 오늘날에도 도심지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주말이나 저녁에 도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쉽

게 찾아올 수 있도록 향교의 명륜당에서 국악공연이나 현악4중주와 같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최근 일부 사찰에서는 주말에 대웅전 앞뜰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 이는 향교·서원의 활용에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 (2) 제례관련 문화자원

유교문화에서 다루는 의례는 관혼상제로 대표된다. 이 중에서도 제례에 대한 격식과 관심은 각별한 것이다. 제례를 행하는 시설로는 수도(한양)의 종묘, 성균관 또는 향교의 문묘 그리고 민가의 사당 및 재실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묘를 건립하도록 법률로 엄격히 규율한 때도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양반계급의 고택에는 대부분 사묘가 있었던 것이 상례이다.

제례관련 문화재로는 사당, 영당(영정), 재실, 명현묘소와 묘비(신도비) 등을 들 수 있다. 충남의 제례관련 지정문화재로는 박문수 영정(보물), 이색영정(보물), 계룡산 중악단(보물), 이충무공 묘(사적), 칠백의총(사적), 홍주의사총(사적) 등이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로 11건(연평부원군 신도비, 보령유격장군창덕비, 서산김두징묘비, 익성군신도비 및 묘비, 김계휘신도비, 김시습영정, 부여김동효영정, 채제공선생영정, 청양 영모재, 전운상영정, 정일상영정 및 한유도 등), 기념물로 16건(신자경선생묘, 홍대용선생묘, 송선군묘, 영규대사묘, 김종서장군묘, 계룡산초혼각지, 김좌진장군묘, 김옥균선생유허(묘), 김장생선생묘소일원, 전득우묘, 이색선생묘일원, 이광윤묘, 최익현선생묘, 남연군의묘, 도응선생묘 일원, 남이홍장군묘 등), 문화재자료로 58건이 있다. 충남의 고택 가운데에는 11건의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로 4건의 유형문화재, 1건의 기념물, 10건의 민속자료, 9건의 문화재자료가 있다.

이와 같은 제례관련 문화공간에서는 조상숭배 생활체험으로 조상제례 및 접빈객 의례 재현, 진설도 실습 및 제향의례 재현, 다담상 재현, 불천위제사 재현, 세일사(시제) 제향 교육 및 재현 등이 가능하다. 특히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재실은 주변의 고택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체험교육을 위한 민박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윤리관련 문화자원

윤리관련 문화재로는 충효열 정려, 충효열 관련 문서, 기타 충효열 관련 시설물을 들 수 있다. 충남에서는 유관순열사 유적과 매현 윤봉길의사 사적지가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광남군 이광악 선무공신교서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로 공주소학리 효자향덕비, 고정리 양천허씨 정려, 연기군의 효교비, 화순옹주 홍문, 예산 이성만형제 효제비가 있으며, 기념물로 금산 이치대첩비가 있고, 그 외 문화재자료로 15건이 있다. 충효열 정려와 같은 윤리관련 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격전지 등 역사적 장소에서는 충효정신교육, 체험교

육 등 청소년 수련이 가능하고, 충·효·열 정려는 효체험행사 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4) 교유관련 문화자원

조선시대 선비들의 교유시설로는 누정이 있다. 정(누)각은 교류 및 강학의 장이자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기도 하다. 교유시설은 마을 공동 또는 개인이 설치하기도 하며 그 활용 또한 마을공동 또는 개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의 교유관련 시설 가운데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한건도 없고, 도지정 문화재로 공북루, 여민루, 임이정, 팔괘정, 종학당(정수루, 숙사), 경이정, 목애당 등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14건의 문화재 자료가 있다. 교유시설은 대부분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 3) 연계관광 자원화

유교 관련 공간과 행사를 연계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체험 및 학습시간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다양한 문화체험과 관광자원 다원화수요 팽창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유교자원을 관광자원화 할 경우, 지역별·주제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상생·특화시키고, 건물과 문화재 외에 다양한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강하며, 유형별·주제별 체험과 탐방코스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연계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는 개별 유적으로서 향교와 서원 등 유교자원은 지역별로 분산적이고, 다양하며 계열성도 희박하여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과 메리트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를 선정 집중 육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① 다양한 다른 자원들과의 경쟁력을 고려한 특화, ② 충절인물, 학맥, 교육과 강학, 저술 관련 유적·유물 연계, ③ 전통가옥과 의례, 민속마을, 동족마을 연계, ④ 묘소, 풍수, 취락경관 연계, ⑤ 일반 문화관광자원의 하나로 단순 연계하는 방안만이 아니라 광역문화권의 정신사, 지성사를 배태한 기반으로 부각하여 연계하는 방안, ⑥ 광역문화권의 문화 특징 중 특정분야(학술, 교육, 인물 등) 자원으로 부각하여 연계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 건물·문화재라는 단편적 의식을 탈피하고, 정신사·문화사라는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자원화해야 한다.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향교·서원의 교육과정도 사실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거나, 제례와 의례도 정치·사회활동의 측면에서 제례만이 아닌 생활의례로서 향약·향음주례·향회 등의 자료를 찾아 재생해야 한다. 인물에 대한 자료와 설명도 높은 벼슬이나 행적도 좋지만, 사상·저술·전설·일화, 특히 각 지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사실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향약과 소학·사창문제, 향안·향규·유향소와 관련되는 지역세력의 결집과 갈등문제, 의병·구국활동 양상, 그리고 당파와 학맥문제 등이 정리되어야 하며, 건축물 이외의 고문서나 전적, 금석문, 지명, 전설 일화까지

확대하고, 제례와 혼례에 한정된 의례들도 향약례나 향음주례·향사례, 동계 동약 의례, 향회, 문중회의 등으로 넓히고, 종가의 음식이나 종부의 삶, 동족촌락의 공동체 문화 등이 어우러진 종합문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충남의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답사코스는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와 홍보를 통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논산시 연산면 일원과 노성면 일원, 아산-예산 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답사코스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연산의 유교문화와 황산벌

- 답사 코스 : 황산벌 - 계백장군묘역 - 충곡서원 - 돈암서원 - 고정리 광산김씨 종가 (양천허씨 정려, 광산김씨 종가재실 등) - 사계묘역(신도비, 묘역, 재실, 부조묘 등) - 개태사
- 특 징
  - 돈암서원 숙박 및 교육·학술 활동과의 연계 가능
  - 고정리 일원에 다수 분포하는 재실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별도의 시설 건립 없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가능
  - 돈암서원, 고정리, 사계묘역 등은 도보답사가 가능한 3~4km 구간에 밀집하고 있는 충청도의 대표적 유교유적지임
  -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개발하되, 노성면 코스와 연계하면 2~3일 답사코스로 개발이 가능함

#### (2) 노성의 선비문화 체험

- 답사 코스 : 노강서원 - 장구리 유적(윤황고택, 사당, 묘역) - 병사리 유적(파평윤씨 종학당, 병사묘역 및 재실, 유봉영당) - 교촌리 유적(궐리사, 윤증고택, 노성향교)
- 특징
  - 가까운 거리에 관련 유적이 밀집한 충청도의 대표적 유교유적지임
  - 교통이 불편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천안-)공주-논산 간 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내방객의 점증이 예상됨
  - 병사리 재실 등을 이용한 숙박이 가능하며, 교육·학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함
  - 종학당의 전통교육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유지·존속되고 있으며, 외부인에게 개방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시킨 살아 있는 전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가능함
  -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개발하되, 연산면 코스와 연계하면 2~3일 답사코스로 개발이 가능함

#### (3) 근대도시 강경과 선비문화

- 답사 코스 : 강경포구와 나루 - 죽림서원과 임이정·팔괘정 - 강경읍내의 근대 건축물

○ 특징

- 근대문화의 중심지에 형성되어 있는 선비문화의 모습
- 사제동행의 상징으로 활용할 경우, 청소년 교육의 장이 가능
- 선비문화와 근대문화, 나아가 젓갈시장과의 연계 가능

(4) 아산시 남서부-예산시 북동부 일원

○ 답사 코스

: 아산시 온양민속박물관·맹씨행단·외암민속마을 -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방산리 - 신암면 추사 관련 유적

○ 특 징

-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과 관련된 유적들이 다수 분포 (추사 김정희, 고불 맹사성)
-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 많음 (외암민속마을, 상항·방산)
- 최근 내방객이 급증하는 추세의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음 (외암민속마을, 추사고택 등)

(5) 대전 - 강경간 답사코스

○ 답사코스 : 대전 자양동 우암사적공원(남간정사, 기국정, 우암고택 등) - 송촌동 동춘당 -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충현서원, 고청묘소, 공암굴) - 동학사(숙모전) - 논산시 연산면 - 논산시 강경읍

○ 특 징

- 호서 유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서인-노론 학맥의 적통에 해당되는 인물들의 관련 유적을 볼 수 있는 답사코스임
- 특히 정통론에 입각한 노론계의 사상적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임(※ 앞으로의 연구과제이기도 한, 노론계 주도 정국에서 존숭되었던 삼은(三隱)·최영·김종서·사육신 등의 인물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대표적인 충절로 숭상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주도 인물들은 망국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왜곡, 평가절하되고 있음)
- 대전시의 우암과 동춘당 관련 유적은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5. 결론 및 정책제언

충남지역은 조선시대 한국유교문화의 중심지였다. 고려말 성리학을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충남 남포 출신의 백이정(白頤正)이었으며,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한산의 이곡·이색 부자를 꼽을 수 있다. 조선초기 사육신 가운데에는 성삼문, 박팽년, 이개 등이 이곳과 연고가 있으며, ‘조선왕조 500년 충의의 표상’ 김종서도 충남(공주)에서 태어나 충남에 묻혔다. 16세기 이지함·서기·홍가신 등은 화담 서경덕 계열의 인물이었지만, 17



세기 충남지역은 율곡 이이의 학통이 주류를 이루었다. 17세기 이후 3세기간 중앙정치와 성리학계를 주도한 인물은 대부분이 호서(충남) 출신이었다. 충남에서는 기호(율곡)학파의 중심인물을 다수 배출하였으며, 인물성동이론을 주도한 남당 한원진과 외암 이간도 충남출신이었다. 또한 17세기 산림(山林)도 38명 중 17명이 충청도출신이었다. 따라서 충남에는 유무형의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남아 있다.

충남의 지정문화재 817점[국가지정 문화재 202점, 도 지정문화재 325점, 문화재자료(도 지정) 290점] 가운데 유교문화재는 346점[국가지정 문화재 43점, 도 지정문화재 147점, 문화재자료 156점]에 달한다. 지정된 유교문화재의 지역별 분포는 논산, 부여, 공주, 아산, 예산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교유적은 논산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많이 남아 있다.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논산을 중심으로 한 호서의 내륙지방에 유교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충남의 유교문화자원은 가치에 비해 아직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교문화재의 문화재 지정에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유교문화재는 유형문화재만이 아니라, 동산문화재와 무형의 정신문화자원도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유교문화재의 도지정문화재 지정과정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미흡하며(고고학, 미술사 중심), 건축사 중심의 지정이 이루어졌다. 유교문화재의 지정에는 고문서, 문적 등 관련 문헌자료 검토와 함께 정신문화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 20여년간의 문화재 보수 사업비의 15%가 유교문화재에 사용되었다. 특히 향교·서원의 보수에 60% 이상 투자되었다. 투자된 비용에 비해 유교문화공간의 활용가치는 낮은 편이다. 이제 건물보수 중심의 관리실태를 지양하고, 유교문화자원 가운데 고문서·전적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수집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형의 유교문화자원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향교와 서원 등 유형의 유교문화공간에서 과거에는 많은 유교의식, 교육, 교화 등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전통시대의 정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동구밖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대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정려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

이제 문화재정책은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할 시기이다. 단순한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며, 적절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보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교문화재(자원)는 그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현대적 활용이 가능하다.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활용은 충남 유교문화의 특장을 최대한 살린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은 교육관련 문화자원, 제례관련 문화자원, 윤리관련 문화자원, 교유관련 문화자원 등 유형별로 본래의 기능을 살린 활용을 도모함이 효과적이다. 또한 연계관광 자원화, 유교문화유적지 답사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교문화자원의 핵심분야인 향교·서원의 활용방안은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특성 조사와 연구를 통한 현대적 활용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끝으로 호서 유교문화의 핵심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충남내륙지역을 기호유교문화권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개발하기를 제언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서지역은 기호학파의 중심

인물을 다수 배출하였다. 그러나 호서지역은 그 동안 영·호남에 비해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지 못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유교문화자원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유교문화자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면, 더욱 많은 유교문화자원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향교·서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충남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조선시대 지방 관학교육의 중심지였던 향교가 호서지역(충청남·북도, 대전)에 56개소 현존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향교 전체(234개)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서지역의 면적이 전국의 1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교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면적이 전국의 8%에 불과한데, 현존 향교수는 36개소(전국대비 15%)에 달하여, 향교의 밀집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 또한 조선시대 지방 유교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원·사우의 건립현황을 보면, 충청도에는 모두 118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사액서원은 39개소였다.

특히 호서의 유교문화자원은 논산을 중심으로 인근의 대전·공주·부여·금산·보은 등에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의 집중개발이 가능하다. 충청도의 내륙지역인 논산, 대전, 보은, 금산 등은 17세기 기호학파의 핵심적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지금도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예컨대 서원·사우의 경우 논산·금산·부여 등에 각각 11개소(도합 36개소)나 있는데, 특히 논산에는 대원군의 서원정리시 훼손되지 않았던 서원이 2개소나 있다. 돈암서원은 조선후기 서인(노론)의 중심서원이었으며, 노강서원은 소론의 중심서원으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논산을 중심으로 인근을 기호지역 유교문화권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개발을 실시한다면, 문화적인 잠재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 부록

<표 1> 지정문화재 통계 시·도별 대비(2002년 8월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해제	총계
(국가 지정문화재)																				
국 보	121	3	3	1	2	0	2	41	8	10	27	7	17	52	9	0	0	303	1	304
보 물	369	13	27	21	7	2	5	147	53	48	86	88	119	250	92	1	1	1330	15	1345
사 적	65	4	4	17	2	1	4	55	9	16	42	31	35	94	44	0	0	428	13	441
사적 및 명승	0	0	0	0	0	0	0	0	0	1	1	0	3	3	1	0	0	9	0	9
명 승	0	0	0	1	0	0	0	0	1	0	0	0	3	1	1	0	0	7	2	9
천연 기념물	11	7	1	10	0	0	2	13	27	23	15	26	43	57	34	30	30	330	102	432
중요 무형문화재	35	3	0	4	1	0	0	5	1	2	4	2	13	6	11	17	17	108	7	115
보유자	63	19	1	12	5	0	0	23	6	3	12	10	24	11	29	0	0	223	143	366
중요 민속자료	48	0	4	0	3	0	1	8	11	21	20	13	32	59	11	0	0	239	4	243
소 계	649	30	39	54	15	3	14	269	110	121	195	167	265	522	203	48	48	2754	144	2898
(시·도 지정문화재)																				
시·도 유형문화재	138	48	41	35	26	28	11	137	133	187	135	175	214	298	326	17	0	1949	199	2148
시·도 무형문화재	27	10	14	8	13	10	1	31	8	9	33	20	26	25	18	13	0	266	32	298
시·도 기념물	20	45	11	47	26	38	37	148	74	101	143	98	172	125	211	52	0	1348	168	1516
시·도 민속자료	27	1	4	2	7	2	0	9	4	12	14	33	33	120	20	8	0	296	15	311
소 계	212	104	70	92	72	78	49	325	219	309	325	326	445	568	575	90	0	3859	414	4273
문화재 자료	13	9	33	17	25	41	17	98	107	35	291	144	197	413	283	2	0	1725	168	1897
합 계	874	143	142	163	112	122	80	692	436	465	811	637	907	1503	1061	142	48	8338	726	9064

<표 2> 충남의 향교 현황

시·군	향교명	위 치	문화재 지정번호(지정일)
천안시(3)	稷山鄕校	직산면 군서리 164-1 (향교골)	도지정기념물 109호(97.12.23)
	木川鄕校	목천면 교촌리 124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08호(97.12.23)
	天安鄕校	유량동 190-2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10호(97.12.23)
공주시(1)	公州鄕校	교동 184	도지정유형문화재 75호(78.3.31)
보령시(3)	保寧鄕校	주포면 보령리 47-1	도지정기념물 112호(97.12.23)
	藍浦鄕校	남포면 옥동리 9	도지정기념물 111호(97.12.23)
	鰲川鄕校	오천면 교성리 166	도지정문화재자료 137호(84.5.17)
아산시(3)	牙山鄕校	영인면 아산리 642 (향교골)	도지정기념물 114호(97.12.23)
	新昌鄕校	신창면 읍내리 320-1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13호(97.12.23)
	溫陽鄕校	읍내동 209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15호(97.12.23)
서산시(2)	海美鄕校	해미읍 오학리 226	도지정기념물 117호(97.12.23)
	瑞山鄕校	동문동 655	도지정기념물 116호(97.12.23)
논산시(3)	魯城鄕校	노성면 교촌리 237	도지정기념물 118호(97.12.23)
	恩津鄕校	은진면 교촌리 77	도지정기념물 120호(97.12.23)
	連山鄕校	연산면 관동리 437	도지정기념물 119호(97.12.23)
금산군(2)	珍山鄕校	진산면 교촌리 355	도지정기념물 122호(97.12.23)
	錦山鄕校	금산읍 상리 4 (비호산 아래)	도지정기념물 121호(97.12.23)
연기군(2)	燕岐鄕校	남면 연기리 33	도지정기념물 123호(97.12.23)
	全義鄕校	전의면 읍내리 149-1	도지정기념물 124호(97.12.23)
부여군(4)	林川鄕校	임천면 군사리 213	도지정기념물 127호(97.12.23)
	鴻山鄕校	홍산면 교원리 233	도지정기념물 128호(97.12.23)
	扶餘鄕校	부여읍 동남리 445-1	도지정기념물 125호(97.12.23)
	石城鄕校	석성면 석성리 647	도지정기념물 126호(97.12.23)
서천군(3)	韓山鄕校	한산면 지현리 389	도지정기념물 131호(97.12.23)
	庇仁鄕校	비인면 성내리 4구 169(교촌마을)	도지정기념물 129호(97.12.23)
	舒川鄕校	서천읍 군사리 315	도지정기념물 130호(97.12.23)
청양군(2)	靑陽鄕校	청양읍 교월리 34-1	도지정기념물 133호(97.12.23)
	定山鄕校	정산면 서정리 516-2	도지정기념물 132호(97.12.23)
홍성군(2)	結城鄕校	결성면 읍내리 586 (교촌골)	도지정기념물 134호(97.12.23)
	洪州鄕校	홍성읍 대교리 교동	도지정기념물 135호(97.12.23)
예산군(3)	禮山鄕校	예산읍 향천리 132-1	도지정기념물 138호(97.12.23)
	大興鄕校	대흥면 교촌리 538	도지정기념물 136호(97.12.23)
	德山鄕校	덕산면 사동리	도지정기념물 137호(97.12.23)
태안군(1)	泰安鄕校	태안읍 동문리 725	도지정기념물 139호(97.12.23)
당진군(2)	唐津鄕校	당진읍 읍내리 215-1	도지정기념물 140호(97.12.23)
	沔川鄕校	면천면 성하리 513	도지정기념물 141호(97.12.23)

<표 3> 충남의 서원·사우 현황

시·군	명칭	소재지	舊·別名	창건연대	사액연대	문화재 지정번호(지정일)
천안시 (3)	道東書院(址)	병천면 병천리	竹林書院	인조기축	1676	
	兩賢祠	풍세면 삼태리				
	六賢祠	풍세면 풍서리				
공주시 (6)	忠賢書院	반포면 공암리	孔巖書院	1581	1624	忠賢書院遺蹟:기념물 46 (84.7.26.) 忠賢書院:문화재자료 60 (84.5.17.)
	肅慕殿 (東鷄祠,三隱閣)	번포면 학봉리		936동계사 1394삼은각 1456초혼단		鷄龍山招魂閣址:기념물 18 (77.7.4.) 三隱閣:문화재자료 59 (84.5.17.) 肅慕殿:문화재자료 67 (84.5.17.)
	德泉君 祠宇	의당면 태산리		1739 이건		문화재자료 61 (84.5.17.)
	甲寺 表忠院	계룡면 중장리		1738(?)		문화재자료 52 (84.5.17.)
	尹烱祠宇	계룡면 유평리		?		忠憲公尹烱祠宇:문화재 자료 283 (86.11.19.)
	忠節祠	금홍동 사송정마을	鳴灘書院	1851 이건	1585(?)	문화재자료 20 (84.5.17.)
보령시 (3)	花巖書院	청라면 장산리		1610	1686	문화재자료 138 (84.5.17.)
	光城府院君祠宇	청소면 재정리		?		문화재자료 143 (84.5.17.)
	水弦祠	미산면 용수리		1921		문화재자료 142 (84.5.17.)
아산시 (5)	金谷書院(址)	배방면 중리		1837		
	道山書院(址)	도고면 도산리	道峯書院	1670		
	仁山書院(址)	염치면 서원리	五賢書院	1610		
	靜退書院(址)	배방면 중리		1634		
	顯忠祠	염치면 백암리		1706	1707	牙山李忠武公遺墟:사적 155 (67.3.18.)
서산시 (5)	聖巖書院	읍내동		1719	1721	문화재자료 205 (84.5.17.)
	松谷祠(松谷書院)	인지면 애정리	仁政書院	1694(?)		문화재자료 207 (84.5.17.)
	富城祠	지곡면 산성리		선조대		문화재자료 199 (84.5.17.)
	崇德祠	부석면 강당리		1864		문화재자료 352
	振忠祠(鄭忠信祠堂)	지곡면 대오리		1897		문화재자료 206 (84.5.17.)
논산시 (11)	龜山書院	연산면 오산리	龜巖書院	1700		
	金谷書院	연무읍 금곡리	金谷祠宇	1687		문화재자료 78 (84.5.17.)
	魯岡書院	광석면 오강리		1675	1682	유형문화재 30 (74.8.31.)
	遯巖書院	연산면 임리		1634	1659	사적 383 (93.10.18.)
	鳳谷書院	연무읍 고내리	鳳谷壇所	1712		시 향토유적 15
	竹林書院	강경읍 황산리	黃山書院	1626	1665	문화재자료 75 (85.12.31.)
	忠谷書院	부적면 충곡리	八賢書院	1692(확인)		기념물 12 (76.10.4.)
	杏林書院	가야곡면 육곡리		1867		문화재자료 76 (84.5.17.)
	孝巖書院	가야곡면 산노리	葛山祠	1713		문화재자료 87 (84.5.17.)
	休亭書院	부적면 신평리		1699		시 향토유적 16
	闕里祠	노성면 교촌리	春秋祠	1716		기념물 20 (78.12.30.)

시·군	명칭	소재지	舊·別名	창건연대	사액연대	문화재 지정번호(지정일)
금산군 (11)	礎溪書院(址)	금성면 하류리	草廬書院	1632		
	山泉齋書院(址)	남일면 은대리	山泉齋	1663		
	星谷書院(址)	남이면 성곡리		1613	1663	
	龍江書院	제원면 용화리		1716		문화재자료 19 (96.2.27.)
	龜巖祠	부리면 평촌리		1883		문화재자료 301 (88.8.30.)
	德山祠	부리면 불이리		1962		문화재자료 281(85.12.31.)
	柳谷祠	금성면 하류리	鄉祠宇	1664	1702	
	表忠祠	복수면 곡남리	趙憲祠堂	1649		문화재자료 20 (96.2.27.)
	從容祠	금성면 의총리		1647	1663	七百義塚：사적 105
	淸風祠	부리면 불이리	不二影堂	1672		문화재자료 16 (96.2.27.)
	忠烈祠	금성면 상가리		1831		문화재자료 17 (96.2.27.)
연기군 (4)	雷巖鄉祠(址)	전의면 관정리	雷巖書院	1699		
	鳳巖書院(址)	서면 봉암리	면암서원	1651	1665	
	合湖書院	동면 합강리		1716		문화재자료 41 (97.12.23.)
	文節祠(梅竹軒祠宇)	금남면 달전리		1967		문화재자료 40 (97.12.23.)
부여군 (11)	良谷書院	임천면 교원리	良谷書院	1740		
	東谷書院	세도면 동사리		1928		문화재자료 92 (84.5.17.)
	退修書院	임천면 만사리	繚山書院	1757		문화재자료 91 (84.5.17.)
	蓬湖書院	석성면	蓮湖書院			
	浮山書院	구암면 진변리		1719	1719	
	滄江書院	부여읍 저석리		1629	1696	문화재자료 107 (84.5.17.)
	七山書院	임천면 칠산리				문화재자료 102 (84.5.17.)
	三忠祠	부여읍 관북리				문화재자료 115 (84.5.17.)
	義烈祠	부여읍 동남리	顯義祠	1575	1578	문화재자료 114 (84.5.17.)
	彰烈祠	구룡면 금사리	彰烈書院	1717	1721	기념물 22 (79.12.19.)
	淸逸祠	홍산면 교원리	淸逸書院	1621		문화재자료 93 (84.5.17.)
서천군 (5)	建巖書院(址)	문산면 지원리	鳴谷書院	1662창건 1709이건	1733	
	文獻書院	기산면 영모리		1594	1611	문화재자료 125(97.12.23.)
	劍山祠	비인면 구북리				
	栗里祠	비인면 읍리	栗世德祠	1900		문화재자료 303 (88.8.30.)
	淸節祠	비인면 남당리	淸節鄉祠	1710		
청양군 (3)	龍溪書院(址)	남양면 대봉리		1716	1724	
	慕德祠	목면 송암리		1914		문화재자료 152 (84.5.17.)
	表節祠	운곡면 모곡리		1959		문화재자료 154 (84.5.17.)
홍성군 (2)	魯恩書院(址)	홍북면 노은리	綠雲書院	1675	1712	
	惠學書院(址)	대교리 교동(?)		1706	1722	
예산군 (5)	德岑書院(址)	예산읍 덕잠골		1705	1714	
	晦庵書院(址)	봉산면 봉림리		1709		
	蘇都督祠(址)	대흥면 상중리		고려		
	牛泉祠宇	대흥면 교촌리	牛井祠	1708		
	忠義祠	덕산면 시량리		1917		
태안군 (1)	崇義祠	남면 양잠리		1851		문화재자료 300 (88.8.30.)
당진군 (2)	東岳書院(址)	송산면 명산리	鄉賢祠	1706		
	忠壯祠	대호지면 도이리		1636정려		문화재자료 215

<표 4> 기호유교문화권과 영남유교문화권의 비교

구분	기호유교문화권 (호서내륙중심)	영남유교문화권 (경북북부중심)	비고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시·군 : 논산, 금산, 대진, 보은, 공주, 부여</li> <li>· 면적 : 3,820.7km<sup>2</sup> (전국총면적의 3.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개 시·군 :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li> <li>· 면적 : 10,771.3km<sup>2</sup> (전국총면적의 1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서내륙은 경북 북부유교문화권의 약 1/3</li> </ul>
유교 문화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율곡학과(이이)</li> <li>· 이기일원론과 주기론</li> <li>· 서인계(노론·소론)</li> <li>· 조선후기 여당 (현실참여 강)</li> <li>· 호서내륙에서 중심인물 배출</li> <li>※ 다양한 학풍 공존 (人物性同異論爭)</li> <li>※ 17세기 전국 山林 38명 중 17명이 호서(충청)출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계학과(이황)</li> <li>· 이기이원론과 주리론</li> <li>· 동인계(남인·북인)</li> <li>· 조선후기 야당 (현실비판 강)</li> <li>· 경북북부에서 중심인물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후기 유학의 주류는 기호학과 호서내륙이 기호학파의 중심지</li> </ul>
유교문화 자원의 현황과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서지역(27개시·군, 16,558km<sup>2</sup>)의 향교수 58개소, 서원건립수 135개소</li> <li>· 호서내륙에 집중 분포(논산지역이 중심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남지역(45개시·군, 31,351km<sup>2</sup>)의 향교수 71개소, 서원건립수 318개소</li> <li>· 경북북부에 집중 분포(안동지역이 중심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대비 호서가 영남의 약 1/2</li> <li>· 호서지역은 유교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미 실시</li> </ul>
정책	<p>없 음</p> <p>(백제권 개발사업, 내포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는 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 (1999 ~ 2000, 약 6억원)</li> <li>· 11년간(2000 ~ 2010) 2조 2,666억원 투자예정</li> <li>· 경북도청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단 설치</li> </ul>	
종합평가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유교문화권의 올바른 가치인식을 위해서는 영남유교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에 균형적인 투자 필요</li> <li>· 기호유교문화권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현존하는 호서(내륙) 지역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에 준한 개발계획 필요</li> <li>· 호서 내륙의 유교문화권(논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li> </ul>		